



한국적 바이탈리티에 대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장 김호철
02) 3299-8125

요즘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시장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뿐더러 경제의 펀더멘탈마저 흔들린다는 우려도 들린다. 경제난이 지난 IMF위기 때보다 심하다는 엄살도 없지 않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인과 경제일꾼들의 바이탈리티(vitality)를 굳게 믿기 때문이다.

바이탈리티는 활력(活力)을 의미한다. 승페터의 엔터프레너십 또는 혁신력을 말한다. 무언가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성향. 농업민적 안주보다는 변화에 익숙한 유목민적 특성이기도 하다. 창조적 파괴의 성향이기도 하다.

분명히 한국인. 특히 우리 기업인과 경제일꾼들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외국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제적 바이탈리티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바이탈리티는 한국인들의 특성이다. 한강의 기적, IMF 위기의 극복, 정보화의 기적이 이를 증명한다. 10년전만 해도 요원했던 과학기술 수준이 이제는 선진권 진입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작년 월드컵 때는 붉은 악마의 상상을 절하는 거리응원이 펼쳐져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는 한편 스포츠 응원의 새로운 패턴을 열었다.

이러한 쾌거의 저변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바이탈리티가 그 원동력으로 누워 있다. 이러한 특질에 익숙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한국적 특질로 언급하곤 한다. 밝은 미래의 창조를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주저없이 바이탈리티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기쁨은 이런 기질이 너무 지나쳐 화와 실수를 자초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나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비관적 우려를 낙관적 결과로 반전시켰던 저력은 바로 우리 특유의 바이탈리티였다고 단언하고 싶다.

비록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이탈리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저력은 현금의 역경을 훌륭히 극복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바이탈리티는 어떤 여건에서 마음껏 발휘되는가. 자유와 경쟁이 충만한 여건이 그것이다. 무언가 억제되고 무거운 추(錘)가 매달린 가운데서는 유목적 기민성과 창의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제약되면 결국 나태해져 바이탈리티의 샘이 말라 버린다.

다시 말하면, 현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지속성장을 이루는 해법은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경제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듦으로써 누구나 마음껏 바이탈리티를 발휘토록 하는 것”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는 일인당 국민소득 1만\$선을 무난히 굳히고 이어서 2만\$선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의 지식기반, 기술기반을 업그레이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분야를 되도록 많이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해 갈 주체는 누구도 아닌 기업인들, 경제일꾼들이다. 모쪼록 우리 모두 우리 기업인들, 우리 경제일꾼들이 마음껏 바이탈리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성원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